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주의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분류
면허·안전모 필수, 차도 25㎞ 이하 주행
경찰 "운행 지침 마련·법 개정 검토 중"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휠'을 타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무분별한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대여·운행 또는 사고 시 인명·물적 피해를 주거나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력 장치가 달린 전동킥보드·휠(정격출력 0.59㎾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배기량 50㎤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에 전동킥보드·휠을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1·2종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살 이상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륜차로 분류돼 안전모를 착용하고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제한 속도는 25㎞이하다. 고속도로 통행도 제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공원에서 영업 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52.2%) 업체는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도 휠을 빌려줬다.

10개(43.5%) 업체는 나이·신장에 따라 이용을 제한했으나 업체마다 제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만 대여하는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21개(91.3%) 업체는 "인도·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23)씨는 B(45)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무면허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사회봉사·준법운전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명령 포함)받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격, 주행 가능 도로, 주행 속도 제한, 0.59㎾ 이상 차종 재분류 등 구체적 운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여서비스 안전 가이드라인, 손해보험 상품 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은 최근 회의를 갖고 전동킥보드·휠과 관련된 교통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성을 다방면에서 분석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 및 보험 개발 여부, 안전한 통행 방법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개정도 검토·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봉우 기자

살처분 되는 닭 경기 화성에 이어 평택 청북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 고병원성 H5N6 AI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 평택의 해당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닭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5·18 왜곡' 전두환·지만원 민·형사소송 3월 재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책임을 묻는 각종 민·형사 소송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소송은 회고록 수정본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일명 2차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 등 2건이다.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는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는 3월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6월28일 '전두환 회고록'을 통한 5·18 역사 왜곡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각각 4000만원씩,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전 전 대통령 측에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추가 손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외에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법률 대응도 크게 두 가지다.

5·18을 남파된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네 차례나 기소된 지씨의 형사 재판은 모두 병합돼 오는 4월3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이에 앞선 3월9일 광주고법에서는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5·18 단체들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남규 기자

사담 후세인이 쓴 연애소설 아마존서 판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집필했던 연애소설 '자비바와 왕(Zabiba and the King)'이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아마존에서 판매되기 시작됐다고 영국 메트로가 최근 보도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이 2000년 익명으로 출판한 처녀작 '자비바와 왕'은 160페이지 분량으로 수천년 전 이라크를 배경으로 어질고 현명한 왕이 순진무구한 시골 여인 자비바와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다. '자비바와 왕'은 출판 이후 아직까지 독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중앙정보국(CIA)은 소설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세인 전 대통령의 연애소설을 구매한 독자들의 반응은 양 갈래로 나뉜다. "소설이 흥미롭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이 책은 끔찍함 그 자체이다"라는 혹평도 이어지고 있다.

'자비바와 왕'은 후세인이 집필한 소설 4권 중 하나로 알려졌다. 그러나 CIA는 '자비바와 왕'을 누군가 대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979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세인 대통령은 2003년 미국에 의해 전범으로 몰려 처형될 때까지 20년 넘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프랑스 파리, 센 강 범람으로 1000명 대피령

프랑스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파리 센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 약 1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비가 더 내릴 경우 이런 상황은 다음 주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센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파리 외곽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물에 잠긴 거리를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이 미술관, 그리고 오랑주리 미술관은 현재 높은 수준의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의 낮은 층은 방문객의 접근이 차단됐다. 센 강과 그 상류 일대의 모든 보트 관광도 중단됐다. 파리 기차역 역시 서비스를 중단했고, 센 강 인근의 일부 주요 도로도 이미 차단됐다.

프랑스 경찰당국은 지난 26일에 86명이 대피하면서 그동안 1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1500여개 가구에는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센 강 수위는 27일 자정에 11㎝가 더 상승해 정상 높이인 4m를 훨씬 이미 넘어섰다.

브라질 나이트클럽서 총기 난사로 14명 사망

브라질 북서부 세아라주의 해안도시 포르탈레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7일 무장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사망했다고 브라질 경찰이 밝혔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총격이 경쟁하는 마약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숨진 희생자 대부분은 조직범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단지 유흥을 위해 나이트클럽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날 새벽 1시30분(현지시간)께 중무장한 괴한 15명이 차를 타고 '포로도 가고' 나이트클럽에 도착해 클럽 안으로 난입하면서 총을 난사했다.

총격은 약 30분 간 계속됐으며 손님들은 총격을 피해 인근 집들로 숨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나이트클럽 앞은 유혈이 낭자했다.

브라질의 '오 글로보'지는 이 사건은 브라질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카불 자폭테러 희생자, 사망 95명으로 증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중심가에서 27일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인한 희생자 수가 사망 95명, 부상 158명으로 늘어났다고 아프간 공공보건부가 밝혔다.

와히드 마지로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부상자들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테러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살폭탄차량 테러는 탈레반 반군이 카불의 한 호텔을 점령해 22명이 숨진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일어났다.

앞서 아프간 내무부의 나스라트 라히미 부대변인은 이날 폭발이 자살폭탄차량 테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앰블란스에 탄 테러범이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 중"이라며 첫번째 검문소를 통과한 뒤 2번째 검문소에서 폭탄을 폭발시켰다고 말했다.

뉴시스